금속투쟁속보 27호

발행일 2025년 5월 29일(목)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LG전자 · 자회사 노동자들 "진짜 사장 구광모 나와라"

금속노조, LG전자 교섭 해태 규탄 … 원청교섭 · 자회사 차별 금지 요구

LG전자 원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교섭과 금속노조 교섭 참여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회사 차별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서울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G전자 원청은 권한과 이익만 가지려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자회사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최순영 노조 부위원장은 "LG케어솔루션과 같이 LG전자 이름을 달고 일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많다. LG전자는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커녕 업무시 발생하는 비용조차 주지 않는다" 라며 "LG전자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교섭장에 나와 노동조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태을 노조 서울지부장은 "LG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22조7447억원, 영업이익 1조2590억원을 기록했다는데 자회사 노동자들은 이런 큰 실적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라며 "LG전자 원청은 오히려 자회사 노동자들을 계속 쥐어짜기만 한다. LG전자 영업이익에는 노동자들 희생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태을 서울지부장은 "불성실한 사측 태도 탓에 교섭은 안 풀리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자회사 뒤에 숨어있는 진짜 사장 구광모 회장을 만나야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을 지부장은 "자본 편의대로 자회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구분하지 말고 원청은 LG전자 옷 입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책임져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에는 LG전자지회(LG전자 수리 서비스)를 비롯해 하이텔레서비스(고객상담서비스 자회사), LG하이엠솔루텍(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자회사), LG하이프라자(LG 가전제품 유통매장 '베스트샵'), LG케어솔루션(가전제품 방문점검업체 '하이케어솔루션') 등 LG전자 원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5개 지회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김정원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장이 나와 LG전자 원청 직접 교섭과 성실 교섭을 재차 주문했다. LG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업체 '하이케어솔루션'에서 일한다.

김정원 지회장은 "하이케어솔루션 사측 교섭 해태로 2024년 임단협 교섭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자회사는 매번 권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결국 하이케어솔루션 지분 100%를 가진 LG전자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노동자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정원 지회장은 “LG전자는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긴다.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고 방문 점검에 차량 운행은 필수인데 한 달 주유비 명목으로 겨우 1만 6천 원을 준다. 기름 냄새도 맡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LG전자에 의해 LG전자 가전제품을 다루는데 도대체 왜 노동자가 아니냐. 우리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LG전자는 사용자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LG전자지회 조합원인 설정석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LG전자 사측에 금속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설정석 부지부장은 “LG전자 원청과 자회사 노동자들이 2018년부터 금속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LG전자가 노동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길 바랐지만, 사측은 노동자 갈라치기와 금속노조 무시에만 몰두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설정석 부지부장은 LG전자를 향해 “금속노조 인정, 금속노조 교섭 참여 보장을 통해 진정한 노사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설 부지부장은 현재 LG전자 성과평가제도가 노동자 간 무한 경쟁을 조장하면서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금속노조는 LG전자 사측에 ▲LG전자 원청 직접 교섭 ▲하이케어솔루션 2024년 임단협 교섭 마무리 ▲자회사 차별 중단 ▲금속노조 교섭 참여 보장 ▲금속노조와의 정기 간담회 시행 ▲성과 강요 중단 등 금속노조 요구를 알리려 했으나, 사측 거부로 요구 서한을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금속노조 조선·자동차·철강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 협약 맺어

금속노조 자동차·조선·철강업종분과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자동차·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의 정책과제를 확인한 자리였다.

조선업 정책협약서에는 ▲다단계 하도급 근절 ▲숙련 노동자 보상 체계 확립 ▲중형조선소 지원 강화 ▲조선업 특화 지역 지원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 담겼다.

자동차산업 정책협약서는 ▲국내 생산 유지 ▲납품단가 연동제 ▲정규직 직접고용 권고 ▲불법파견 금지 ▲산업 공급망 인권·환경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철강산업 정책협약서에는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 피해 방지 등의 과제가 명시됐다.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인 김병조 부위원장은 “조선소 외주화,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책 협약을 계기로 조선소 노동자 삶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쌍용 부위원장(자동차분과)은 “자동차는 제조업의 핵심이지만, 외부 변수와 외국 자본의 지배력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완성차와 부품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부위원장(철강분과)은 “국내 철강 경기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며 “고품질 강판의 해외 이전 우려 속에서, 이번 협약이 선거 이후에도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